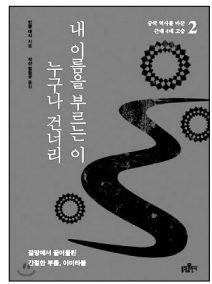


혼탁한 세상 탈출구는?... 간절한 염불 등

내 이름을 부르는 이 누구냐 건너리

인광대사 지음 | 각산 정원규 옮김 | 불광 펴냄
1만5천원



1백여 년 전 혼돈에 빠졌던 근세 중국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진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 불리던 중국 정토종의 13대 조사인

광(印光) 대사는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염불 수행법을 널리 펼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희망을 지켜냈다. 이 책은 누구나 궁급해하지만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염불수행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수행의 요체에 대한 인광 대사 법문의 정수를 엮은 것이다.

청나라 말엽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의 근대 중국은 말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울 때였다. 봉건과 근대를 대표하는 동양과 서양이 부딪히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곳곳에서 전경이 벌어졌다. 사람이 행해야 하는 선(善)을 지키기보다 당장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지 않으면 언제 나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인광 대사는 인과의 도리와 윤회의 가르침, 정토 염불법문을 널리 펼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었다. 대사의 가르침은

탈속(脫俗)의 고매한 경지가 아니라 수태와 출생, 가정교육, 치병, 임종 등 일상적 삶의 모든 모습을 포괄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대교는 어떻게 해야 하며, 출산을 할 때 왜 염불을 해야 하는지, 자녀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왜 여성이 잘 배워야 하는지, 병이 들었을 때 염불하는 방법, 장자리에 들었을 때나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볼 때의 염불 방법, 임종을 맞았을 때 조년 염불하는 법 등 실제 생활서 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상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인광 대사는 아미타불 염불만 권장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 염불과 대비주의 염송 이익에 대해서도 널리 설했다. 실제로 대사는 대비주(大悲呪: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해 만든 대비수보명을 치료하고 해충 구제를 하며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했다. 대비수의 영험은 불가사의해 많은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지금도 중국에서는 대비수를 처방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인광 대사는 인과의 도리에 대해 널리 주장했지만, 그 깊이는 남다른 것이었다. 오역십악(五逆十惡)의 중죄인이어서 장차 아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열 번 혹은 몇 마디의 염불을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의 접인(接引: 부처님이 중생을 정토로 이끄는 것)을 받아서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는 〈관무량수경〉 가르침을 거듭 되풀이했다. 그 말씀은 간절한 믿음과 발원이 있으면 누구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

의 말씀인 것이다.

또한 “천하가 혼란스러운 데는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착수처가 바로 인과의 도리를 바로 아는 것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원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해 염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에 파로운 과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대사의 바람이었다.

정토종 13대조사 인광대사 법문집

염불수행 실천법 구체적 제시

십념법, 십심염불 등 소개해

저자 법문 문답식 구성해 수록

인광 대사는 도움을 원하거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길을 일러주며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에 이르는 염불수행법을 설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염불하는 방법, 잡념이 강할 때 행하는 심념기수법(十念記數法),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십념법(十念法), 육근(六根)을 섭수하여 일심불란(一心不亂)에 이르는 십심염불(攝心念佛)의 방법 등 재가수행자들이 착실하게 수행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염불수행법의 핵심을 상세히 일러줬다.

중국의 절에 가 보면, 법보시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책이 인광 대사의 〈인광대사문초〉와 〈인광대사가언록〉이다. 오랫동안 염불수행을 해온 각산 정원규 거사는 이 두 책에 실린 대사의 수많은 법문 중에서 이와 같은 긴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우리나라의 불자들에게도 소개했다. 대사가 체득한 염불수행의 요체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가 실생활서 주의해야 할 염불수행법 및 대비수를 이용한 치병법과 해충구제법 등 주요 내용을 선별해 실었다. 또한 마지막에는 대사의 법문을 문답식으로 구성해 정토 법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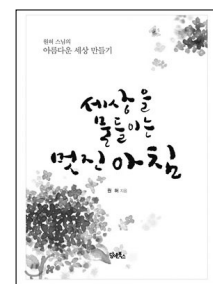
▲저자 인광대사는?

인광 대사(1861~1940)는 청말 민국 초기에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법의 쇠퇴가 극심한 상황에서, 염불 수행으로 중생 교화와 불법 흥포에 헌신했다. 중국에서는 대세지보살의 화신으로 믿으며 정토종 제 13대 조사로 추앙한다. 평생 출가제자는 한 명도 받지 않고, 재가 신자들에게 주로 서신으로 설법했는데, 한결같이 믿음과 발원으로 염불해 극락왕생을 구하라고 권했다. 대사의 법문은 양계초(梁啓超)가 ‘문자삼매(文字三昧)’로 칭송할 정도로 말마다 진리를 드러내고 글자마다 종지(宗旨)로 귀결되며,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마음에 들어맞으며, 선종과 정토의 오묘한 법문을 펼쳐면서 그 사이의 쉽고 어려움을 잘 가려내어, 실로 이전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곳을 훤히 파헤쳤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아침마다 SNS에 실어 보내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

글 원허 스님 | 일러스트 이문 | 담엔북스 펴냄
1만 4천원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대중화된 요즘, 매일 아침 모바일 SNS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이 있다.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다. 스님도 “산속에서 수행할 때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에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의 수행 방법이 되었다 보니 ‘밴드’를 통해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한다. 스님이 날마다 부처님 말씀과 자신의 수행 일상을 전하는 ‘밴드’ 이름은 ‘원허 스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다. 밴드 회원들의 유쾌한 아침을 책임지는 스님은 “예전에 보았던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밑줄 치면서 읽었던 글들도 찾아본다”고 전한다. 이 책은 그간 스님이 밴드에 올린 글을 정리하고 보완해 엮은 것이다.

솔직히 지적해 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 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법구경〉중에서

“깊은 물과 얇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큰 바다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찬 연못과 같으니라.” 〈수타니파타〉중에서

경전 구절과 함께 실린 스님의 짧은 이야기는 현재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오늘이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지를 세상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알았습니디. 토굴에 혼자 있는데도 화가 난다는 사실은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화내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 모두는 자신이 만든

저자 ‘아름다운 세상...’ 밴드 운영

경전구절과 함께 짧은 해설도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원허 스님

산속에서 화두를 참구하며 선승이 될 것을 꿈꾸던 스님에게 도시의 사찰 생활은 수없이 결망을 꾸러야 했던 고단하고 불편한 자리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참문을 열며 되새긴 문구가 스님 자신을 여물게 했다. 그것은 바로 〈벽암록〉의 한 구절.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이 SNS를 통해 매일 아침 전하는 이야기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녹아 있다. 취직을 못해서, 직장 상사와 맞지 않아서, 아이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흥분이 나가지 않아서…… 등등. 지금 여러 문제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위로 받고 또 하루를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

원허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실로 짧다. 누구나 아침 출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법구경〉 〈잡아함경〉 〈수타니파타〉 등 경전의 바다서 길어 올린 구절은 시구처럼 간결하다. 그리고 참 쉽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렬하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 이를테면 다음 같은 구절이다.

‘단점을 정확히 말해 주고 잘못된 것을

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밤에 마당을 서성이며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생의 진리를 스님 자신의 경험과 일상을 통해 친근하게 깨우쳐 준다. 매일 아침 출근길 또는 잠들기 전에 스님의 이야기를 한 편씩 읽으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수행자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기회

원허 스님은 평소 도반들 사이에서 지계가 철저히기로 이름난 율사다. 책 서문에서도 스님은 “계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어지러운 세상서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수행자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고 적었다.

책에는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충실한 스님의 모습도 담겨 있다. 주지 스님인데도 여전히 자신의 방 청소를 스스로 하는 모습이나 오래전 해인사 학인 시절 ‘소고기라면’을 먹고 3천배를 올린 일 등이 그것이다. 스님은 2013년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해원정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해원 대표이사, (재)고산장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또 한 표요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의 회장으로 겸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팔만대장경서 행복 위한 삶의 지혜 찾는다

당신은 고민하며 사는가

진현종 엮음 | 청아출판사 펴냄 | 1만 8천원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담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다.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6년에 걸쳐 완성된 대장경은 1,514종의 경전으로 이뤄져 있다.

한자에 익숙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읽어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겨우 완독할 수 있으며, 경판을 쌓아 올린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다고 한다. 〈삼국사기〉 저자인 이규보는 〈팔만대장경〉을 ‘나라의 큰 보물’이라 했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대

대로 전래되는 국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요행을 바라며 슬기롭음과 지혜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현재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면, 그 원인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고민하며 살아간다.

이런 고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에서 뽑은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서 벗어나는 지혜를 골라 모았다.

1장 ‘후회해도 소용없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2장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에서는 세상 만물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

어리석음서 벗어나는 지혜 골라

〈중야함경〉 〈잡야함경〉 등서 발췌

진다는 가르침을, 3장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에서는 모든 일의 주체와 객체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한다.

4장 ‘때를 기다려야 한다’에서는 성과를 보고자 한다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일깨우고, 5장 ‘늘 좋은 마음으로’에서는 세상만사는 마음이

진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해 줄 것이다.

이 책에 인용된 이야기는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육도집경, 사분율, 중야함경, 잡야함경, 분별공덕론, 경률이상, 법원주림, 법구비유경, 묘법연화경, 대장엄론경, 현우경 등 경전 내용들이다.

이는 동국대 역경원서 완벽한 한글대장경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와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종교와 나라를 떠나 한글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에 맞는 재해석과 문법 그리고 재구성을 통해 이뤄졌다. 재미있고 쉬우며, 깨달음을 주는 〈고려 팔만대장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 고민하는 삶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묘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해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중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미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견보탑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묘법연화경(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견보탑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본사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견보탑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법연화경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